

2018년 9월 6일

#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나스닥, FANG 기업들의 하락 여파로 부진 페이스북 -2.33%, 트위터 -6.06%, 넷플릭스 -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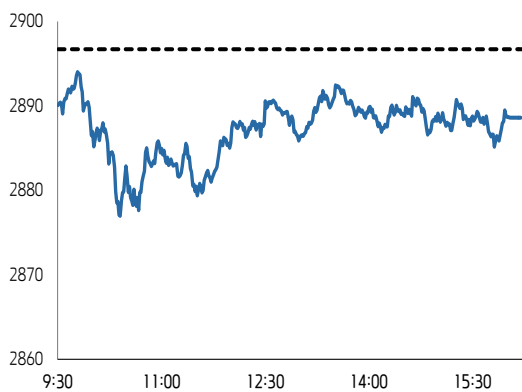
### 기업들의 비용 증가 우려

미 증시는 'FANG' 기업을 비롯한 기술주가 부진한 가운데 일부 필수 소비재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데 힘입어 혼조 마감. 페이스북(-2.33%)과 트위터(-6.06%) 등이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한 이후 비용 증가 우려감이 높아진 점이 부담. 다만, 월마트(+1.32%)와 캐터필라(+1.70%) 등은 투자이견 상향 소식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자 다우지수가 상승하는 등 지수는 혼조 마감(다우 +0.09%, 나스닥 -1.19%, S&P500 -0.28%, 러셀 2000 -0.33%)

페이스북의 셰릴 샌드버그 최고운영책임자와 트위터의 CEO 인 잭 도로시가 2016 년 미 대선과 관련된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 샌드버그는 “사용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과 비용을 부담할 것” 이라고 언급. 트위터의 도로시 CEO 는 “정치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주장. 한편, 구글의 래리 페이지 CEO 에 대해서도 청문회 출석을 요구 했으나 “외국의 간섭 문제에서 다른 플랫폼 회사들 보다 안전하다” 라며 출석 거부. 문제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관련 기업들이 보안과 관련한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최근 미 증시는 대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우려감이 높아지며 방향성 없는 종목 장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관세 부가가 기업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관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 일부 투자회사들에 따르면 2 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S&P500 기업들의 EPS 는 6~10% 하향 조정 될 것이라고 분석. 이를 감안 관세 부과시 S&P500 3 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9% 증가하겠지만 4 분기는 9%, 2019 년 1 분기 영업이익은 4% 감소할 것으로 예상. 그 동안 미 증시가 실적 개선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실적 둔화가 될 경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용 증가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291.77	-1.03	홍콩항셱	27,243.85	-2.61
KOSDAQ	820.00	-0.88	영국	7,383.28	-1.00
DOW	25,974.99	+0.09	독일	12,040.46	-1.39
NASDAQ	7,995.17	-1.19	프랑스	5,260.22	-1.54
S&P 500	2,888.60	-0.28	스페인	9,301.30	-0.80
상하이종합	2,704.34	-1.68	그리스	696.09	-1.99
일본	22,580.83	-0.51	이탈리아	20,581.78	-0.0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기술주 부진

페이스북(-2.33%), 트위터(-6.06%)는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이후 언급한 증언을 통해 비용 증가 우려감이 높아지자 하락 했다. 알파벳(-1.01%), 아마존(-2.19%), 넷플릭스(-6.17%) 등도 동반 하락 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1.24%)는 FBI가 외환정책 관련 조사에 돌입했다고 발표하자 하락 했다. 비자(-3.47%), 마스터카드(-2.61%), 페이팔(-4.32%) 등도 동반 하락 했다. 특히 페이팔은 글로벌 사용자가 많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해 낙폭이 컸다. 마이크론(-4.60%)은 NAND 가격 하락 우려감이 높아지자 전일에 이어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했다. 한편, 이를 부각시켰던 웨스턴디지털(-0.38%)과 시게이트(-0.08%)는 제한적인 하락에 그쳤다.

반면, 월마트(+1.32%)는 아마존과 경쟁하기 위해 식품 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했다. 이를 빌미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확산되며 투자 의견 상향 조정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캐터필라(+1.70%)도 실적 개선 기대 속에 도이체방크가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자 상승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0.64%	대형 가치주 ETF	+0.44%
에너지섹터 ETF	-2.46%	중형 가치주 ETF	+0.33%
소매업체 ETF	-1.01%	소형 가치주 ETF	+0.04%
금융섹터 ETF	+0.07%	배당주 ETF	+0.64%
기술섹터 ETF	-1.25%	변동성 ETF	+0.89%
소셜 미디어업체 ETF	-3.34%	대형 성장주 ETF	-0.87%
인터넷업체 ETF	-2.70%	중형 성장주 ETF	-0.93%
리츠업체 ETF	+0.63%	소형 성장주 ETF	-0.67%
주택건설업체 ETF	+0.82%	신흥국 고배당 ETF	-1.03%
바이오섹터 ETF	-0.36%	신흥국 저변동성 ETF	-0.91%
헬스케어 ETF	+0.33%	하이일드 ETF	-0.11%
곡물 ETF	0.00%	물가연동채 ETF	-0.10%
반도체 ETF	-0.58%	Long/short ETF	+0.0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45.58	-0.08%	-0.79%	-2.91%
소재	370.84	+0.61%	-0.99%	-0.47%
산업재	649.61	+0.61%	-0.07%	+1.15%
경기소비재	921.26	-1.10%	+0.02%	+2.40%
필수소비재	556.72	+1.18%	+0.75%	+0.44%
헬스케어	1,066.46	+0.27%	+0.09%	+2.56%
금융	471.96	+0.03%	-0.34%	+0.26%
IT	1,303.36	-1.50%	-0.97%	+1.13%
통신	153.53	+0.83%	-1.85%	+1.23%
유틸리티	274.62	+1.27%	+2.10%	+1.79%
부동산	207.78	+0.58%	-0.57%	+0.9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종목 장세 전망

MSCI 한국 지수는 1.35% MSCI 신흥 지수도 1.44%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553 계약) 여파로 0.50pt 하락한 294.2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19.2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스닥이 FANG 기업들이 부진하며 1% 넘게 하락 했다. 하락 요인은 페이스북 등 플랫폼 회사들이 비용 증가 가능성이 높아지며 실적 둔화 우려감을 자극시킨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미국의 대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앞두고 비용 증가 등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장 후반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 매물을 내놓으며 1.03% 하락 했다. 인도네시아 증시 급락 등 신흥국 변동성 확대도 영향을 줬으나, 이보다 미국의 대 중국 관세 발효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를 감안 미 증시, 특히 나스닥의 부진은 전일 한국 증시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제유가를 비롯한 상품가격의 하락으로 여전히 신흥국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를 감안 오늘 한국 증시는 미국의 관세 발효를 앞두고 글로벌 증시의 특징 처럼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무역적자 확대

미국의 7 월 수출은 전월 대비 1.0% 감소했으나, 수출은 전월 대비 0.9% 증가했다. 이 여파로 무역수지 적자폭은 전월(457.4억 달러) 보다 증가한 501억 달러로 발표되었다.

유로존 7 월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1.1% 증가에 그쳤으며 이는 지난달 발표치(yoy +1.5%)를 하회했다. 전월 대비로도 0.2% 감소했다.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 지수는 전월(52.8) 보다 둔화된 51.5로 발표되었다.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내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지수 개선이 지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 유가 소비 둔화 우려로 하락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허리케인이 우려와 달리 피해가 적었다는 점이 부각되며 하락했다.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우려감이 높아지자 소비 감소 우려감 또한 국제유가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특히 이러한 무역분쟁 여파로 신흥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신흥국에서의 소비 또한 둔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부담이었다.

달러지수는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된 점이 부담이 되며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한편, 파운드화는 브렉시트 관련 주요 요구 사항을 포기 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달러 대비 강세폭을 확대하기도 했으나, 독일이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발표하자 강세폭이 제한 되었다. 유로화는 이탈리아 이슈가 완화되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엔화는 신흥국 우려감이 높아졌으나 당장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제한된다는 점이 부각되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신흥국 환율은 달러 약세 여파로 강세를 보였다.

국제채금리는 무역적자폭이 확대되었으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모습을 보이며 보험권에서 등락을 보였다. 한편,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연준의 금리 정책이 미국 경기 침체를 유발할 위험이 커졌다” 라고 언급 했으나 영향력은 제한 되었다. 블라드 총재는 지속적으로 금리인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왔었기 때문이다.

금은 달러 약세 여파로 소폭 상승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우려감이 높아지자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44% 철근도 0.39%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8.72	-1.65	+0.28	Dollar Index	95.125	-0.33	+0.55
브렌트유	77.27	-1.15	-0.25	EUR/USD	1.1633	+0.44	-0.63
금	1,201.30	+0.18	-1.08	USD/JPY	111.54	+0.12	-0.13
은	14,220	+0.28	-4.56	GBP/USD	1.2910	+0.43	-0.89
알루미늄	2,068.00	+0.29	-4.79	USD/CHF	0.9718	-0.28	+0.13
전기동	5,871.00	+0.96	-3.53	AUD/USD	0.7194	+0.22	-1.60
아연	2,419.50	+0.17	-3.68	USD/CAD	1.3171	-0.14	+2.05
옥수수	365.25	-0.81	+2.53	USD/BRL	4.1439	-0.39	+0.92
밀	521.75	-1.83	-0.29	USD/CNH	6.8426	-0.10	+0.30
대두	838.00	-0.74	+0.57	USD/KRW	1121.50	+0.59	+1.02
커피	103.80	+2.32	+0.73	USD/KRW NDF 1M	1119.22	+0.15	+0.82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899	0.00	+1.45	스페인	1.445	+1.90	-1.70
한국	2.265	-4.40	-10.00	포르투갈	1.865	+0.90	-2.80
일본	0.115	-0.80	+1.20	그리스	4.524	-0.20	+32.40
독일	0.380	+2.30	-2.40	이탈리아	3.091	+7.90	-2.90